

법정에 간 과학 수사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1. “이제부터 줄기세포 섞어심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세포덩어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계대배양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콜로니가 형성될 시점에...”

2006년 5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5층 대회의실에는 때아닌 ‘과학 프리젠테이션’이 벌어지고 있었다. 줄기세포수사팀의 한 검사인 김선중 연구원이 실시했다는 섞어심기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과학자들이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김사는 영상기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열고 설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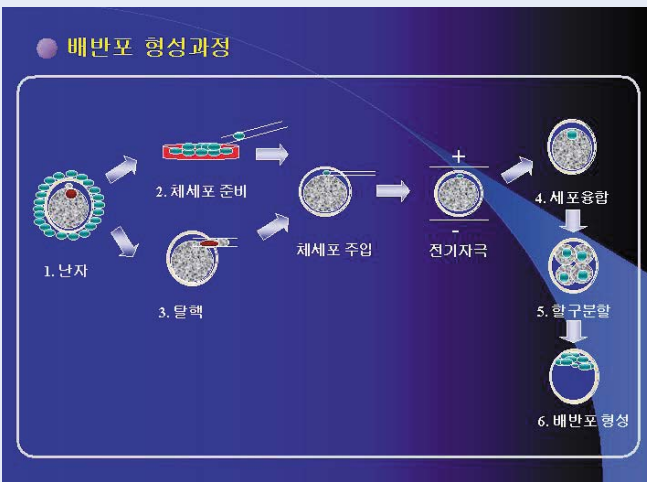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을 둘러싼 열띤 공방

검사는 체세포복제를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김선중 연구원이 미즈메디의 줄기세포를 섞어 배양하는 방법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프리젠테이션 파일에는 김선중 연구원과 서울대 권대기 연구원도 등장해 줄기세포 배양 과정을

을 재현하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마치 범죠행장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흰 실험가운을 입은 김선중 연구원과 권대기 연구원이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재연한 것이다.

#2. “배아체로 DNA검사를 한 후 테라토마 DNA검사를 한 것으로 표기해 사이언스 논문에 실은 것 맞죠?” “치녀생식 여부를 판단하는 RT-PCR 데이터에 ‘BL(블라스토시스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번 줄기세포를 시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2006년 6월 20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지방법원 417호실에서 80여 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5개월 동안 줄기세포를 공부한 검사와 황우석 전서울대 교수 사이에 과학 용어를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줄기세포가 10번의 계대배양 과정을 통해 완성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검사의 질의에 황 교수는 “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5월 12일 검찰이 줄기세포 섞어심기 과정을 설명하며 기자들에게 보여준 프리젠테이션 파일, 그동안 다른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미공개 자료다.



5월 12일 서울지검 이인규 차장검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



6월 20일 열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첫번째 공판에서 황우석 전서울대 교수가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이 끝난 시간은 오후 6시30분이었다. 20분의 휴정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과학 수업시간'으로 착각할 만큼 많은 전문용어들이 오가는 바람에 처음에는 귀를 쫑긋 세우던 방청객들은 슬슬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러 나온 변호사들도 자리에 앉아 살짝 조는 모습을 보였다.

어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둘러싼 공방에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첫 사례는 MBC PD수첩이 12월초 기자회견을 했을 때다. 국내외의 기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경영학을 전공한 한학수 PD는 줄기세포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20여분간 설명을 했다.

검사와 판사의 '과학' 다시 보기

이번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검사였다. 인문계 출신으로 법을 공부한 검사들이 줄기세포에 대해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가우뚱하는 장면을 보며 드디어 과학이 법정까지 왔음을 실감하게 됐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기소된 6명의 피고인(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김선중, 윤현수, 장상식)은 모두 과학자다. 검찰의 신문 내용도 과학 분야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5개월 동안 과학을 집중 공부한 검사들은 줄기세포 논문 수사 과정에서 과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 사기꾼이나 정치인, 강력사건 범인들을 다뤄온 검사 입장에서 과학자들은 쉬운 상대였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순진한 편이고 증거를 들이대면 바로 인정하는 성향이 있었다. 또 생명공학 연구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팀이 과학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과학은 의외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사들은 과학의 내밀한 세계까지 접근하게 됐다. 과학적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정의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사실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또 연구자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검사들은 과학자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러 다른 집단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 공은 이제 판사에게 넘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의 황현주 부장판사 및 배석한 판사들은 이제 줄기세포 공부를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마도 이미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다. 검사의 수사결과와 신문이 타당하지 변호사들의 변론에 새겨들을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아마 검사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첫공판에서도 당장 난자 제공과정의 '기본비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시험관 시술을 하러온 환자들이 여분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할 경우 150만 원의 병원비 감면을 해준 것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신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장상식 한나산 부인과 원장은 "기본비용일 뿐 절대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기본비용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계속 질문했다. 결국 판사의 질문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과정에 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본비용이란 난자채취에 드는 15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기세포를 공부해야 이 사건이 끝날 것인가. 과학은 본인이 공부해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옆에서 아무리 결론을 설명해줘도 모른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사가 공부하고 판사가 공부하고 아직도 헛갈려하는 일반인들이 제대로 과학을 공부해야 이번 사건이 완벽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SD**